

노동조합 정치가 반이다

“시험성적으로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세계,
성, 인종, 직업, 학력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세상,
이게 정말 몽상일까요?”

지금부터 50년전 6.8혁명 세대가 투쟁하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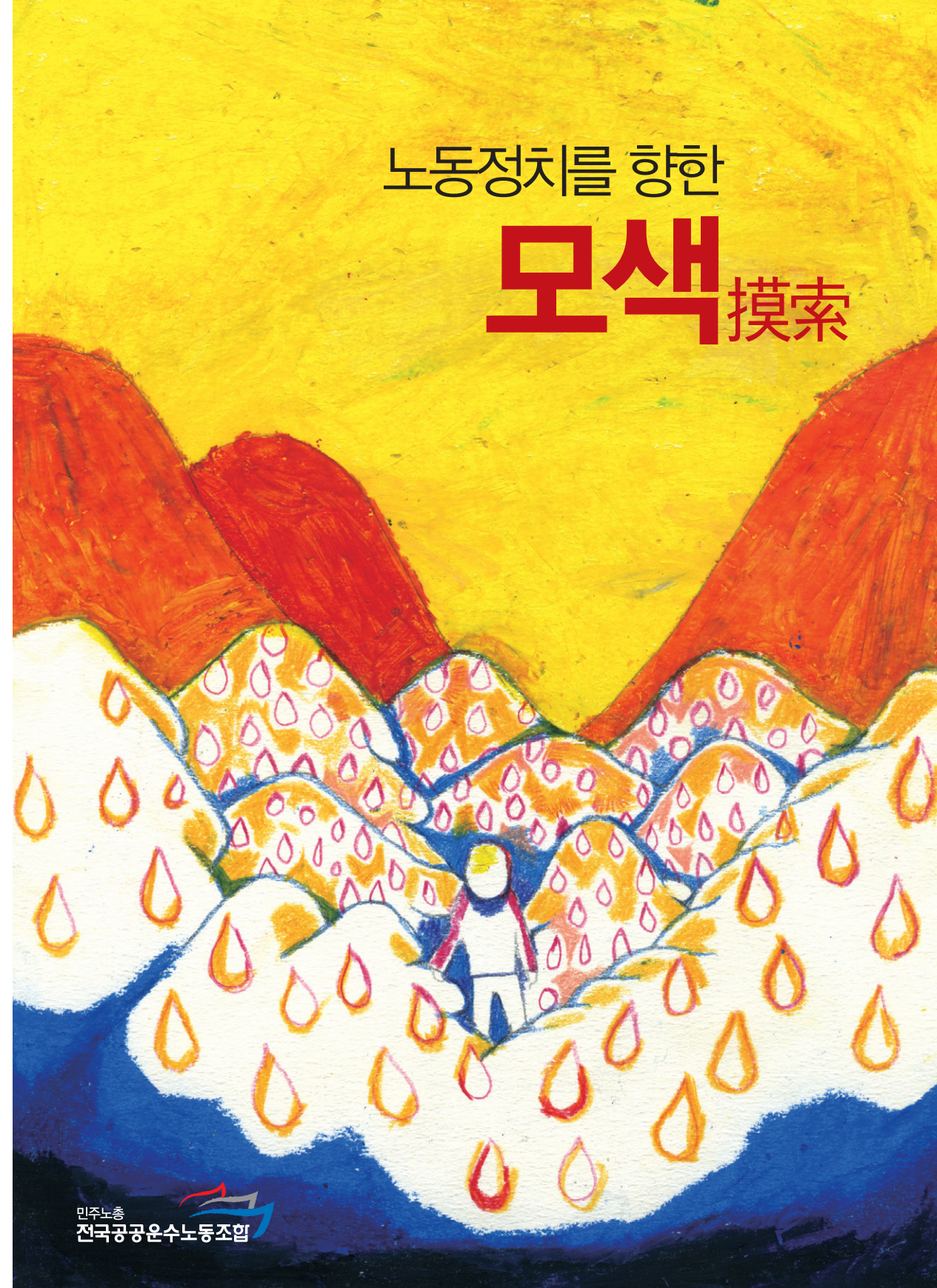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신이 꿈꾸지 않았을 뿐!”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모색,
새로운 진보정치를 위한 꿈을 함께 꾸어 봅시다.

표지그림: 이은지

노동정치를 향한

모색 摸索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엔 그 동안 누적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바꿔야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촛불 항쟁으로 변화를 위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없어져야 할 적폐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고,

거꾸로 그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 악을 쓰며 달려들고 있습니다.

적폐의 온상 중 하나인 정치개혁과 관련

오는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노동자·서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을

우리 노동자들의 힘으로 통째로 바꿀 수 있을까요?

2020년,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혁을 위해 힘을 모아 봅시다.

2019년 10월,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회

노동이 중심적 가치로 되는 2020년 국회를 향해 전진하자!

우연일까요? 처음으로 진보정당 의원 10명이 국회에 입성했던 2004년 그 날과 똑같은 2020년 4월 15일이 투표일입니다. 다시 노동자들이 진보정치의 중심을 잡읍시다.

‘촛불’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명으로 발전하기는커녕 적폐세력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변혁의 원동력인 민주노총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잇단 노동개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노동자가 중심을 잡고 계급적 단결을 통해

정치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국회,

노동이 중심적 가치로 될 수 있는

2020년 국회를 향해 한걸음 더 전진합시다.



2004년 4월 15일 민주노동당 10명 의원 국회입성, “세상을 바꾸자”라고 외치고 있다.